

은평 토박이로 사라진 기억을 기록하고 있어요

□ 인터뷰이: 공인희(영상기록팀)

□ 인터뷰어: 이미혜(기록수집팀)

□ 인터뷰 날짜: 2022년 8월 6일

□ 장소: 페이퍼백 사무실

Q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?

인스타그램 검색을 보다가 ‘여기은평’ 채널이 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은평구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은평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

저는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다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몇 명은 도슨트 같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, 들어와서 보니까 그림팀도 따로 있고 기획팀 따로 있고 영상팀 따로 있고 인터뷰하시는 분들, 다 따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평소에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거 좋아해서 영상팀으로 들어갔어요.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지금 반전의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

영상 이런 거 취미로만 해봤지 물론 지금도 아마추어로 시민으로 아카이빙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전시회 원가 작품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전문가들이나 할 일인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.

Q. 실습워크숍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, 이 교육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을 때 처음 생각했을 것에 비해 비해 아키비스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?

처음에 그냥 같이 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뵙으시는 줄은 모르고 몇 명만

은평구에 오래 살던 정말 토박이들 위주로 골라서 시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협업하듯이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은평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워낙 예전부터 그냥 핸드폰으로 은평구를 많이 기록하고 사진 찍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영상기록팀으로 지원한 거였어요. 이번에 그렇게 영상 찍고 사진을 찍고, 더 깊숙이 알게 되었어요. 은평구 토박이라고 해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. 제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몰랐던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또 다른 경험이었고 영상팀 들어오면서 이런 작업을 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있어요. 은평구를 좀 더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

Q 기록을 만들고 수집하고 모으는 일에 대한 본인만의 루틴이 있나요?

평소에도 일 끝나고 휴무 때나 시간이 좀 이르게 끝났을 때 이럴 때 산책 많이 해요.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거 아니고 의식의 흐름대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같은 길로 다시 오고, 이 길을 갈까 한번 이 길 가볼까 저 길 가볼까 그러다가 발견되는 새로운 것들을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름답고 예쁘면 그런 것들 바로 영상 남기면 힐링이 많이 되어서 평소에 그렇게 자주 생각 없이 걷는 편이에요.

Q. 지금이 지나면 기억되지 못 할 수도 있는 시간 혹은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 나와 무슨 연관 혹은 연속성이 있을까요?

은평구에 오래 살았고 어렸을 적부터 기억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은 점점 다 사라져가는 공간들을 보면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 싶기도 하고, 그런 서운한 마음들을 좀 더 채워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과거에 내가 지내왔던 장소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좀 있었으면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 마음도 그렇고 제가 한 10년 정도 자취하고 집으로 본가로 돌아왔을 때, 예전 그 모습은 다 하나도 없고 아파트랑 한옥마을이 다 그새 지어졌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과거 사진, 옛날 그 근방에서 찍었던 사진을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세련되게 바뀐 모습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‘옛날에 내가 뛰어놀던 과거 그 기억이 이제 다 없구나’ 서운하기도 하고 해서 (아카이빙) 이 일을 만나기 전부터 은평구를 산책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보면 나한테 좀 의미가 있겠다. 개인적으로 전시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

근데 마침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만나서 더 그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
있었던 것 같습니다